



성모 승천 대축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성모님

한국교회의 수호성인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 같은 날에 기념되는 것이 공교롭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는 민족의 해방에 감사드리는 미사와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미사를 함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성모님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고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교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진리는 초세기 교회로부터 전례 안에서 기념되어왔으며, 전통에 의해 알려졌고, 교부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성경에는 다양한 예형론적typology 표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교의는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성모 승천Assumptio Mariae은 정교회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정교회는 이 축제를 ‘성모님의 잠드심’dormitio Mariae으로 기념합니다. 성모님의 ‘승천’과 ‘잠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동방 교회의 성화(聖畵, icon)는 성모님께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잠드신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갓 태어난 아기인 것처럼 포대기에 싸서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옛날,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안고 있었던 그 장면이 역전된 것입니다. 포대기에 싸여 잠든 ‘아기 같은 성모님’을 예수님께서 감싸 안으십니다. 성모님은 ‘죽음’과 ‘무덤’의 품이 아니라, 주님의 포대기에 싸여졌기에 ‘영’과 ‘몸’이 모두 구원된 것입니다.

‘잘 지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이루게 하고, ‘잘 보낸 인생’이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잠’이 좌절과 우울함으로 인한 현실도피인지, 아니면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의 ‘복된 잠’을 닮아 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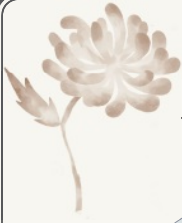


김호준 시몬 신부 | 어학연수



제 1 독 서	묵시 11,19ㄱ; 12,1-6ㄱㄷ,10ㄱㄴㄷ
화 답 송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5,20-27ㄱ
복 음	루카 1,39-56

주일 진레



주님! 조규성 베드로 사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교구 원로사목자 조규성 베드로 신부(1976년 12월 16일 서품)가 7월 31일(토) 새벽 1시 30분에 선종하였다.

장례미사는 8월 2일(월) 오전 10시 교구청에서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고인은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지에 안장되었다.

| 약 력 |

1942. 1. 3.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473-3번지 출생
1960. 2. 경기도 평택고등학교 졸업
1963. 3. 광주 대건신학대학 입학
1969. 3.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편입학
1976. 12.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1975. 12. 8. 부제 수품
1976. 12. 16. 사제 수품(남성동성당/ 장병화 주교 집전)

1977. 1. 3.~1979. 12. 28. 창녕본당 주임 신부
1979. 12. 29.~1982. 9. 17. 사천본당 주임 신부
1982. 9. 18.~1986. 2. 16. 산청본당 주임 신부
1986. 2. 17.~1989. 7. 3. 회원동본당 주임 신부
1989. 7. 4.~1992. 8. 18. 고성본당 주임 신부
1992. 8. 19.~1994. 3. 2. 나자렛예수수녀회 지도 신부
1994. 3. 3.~1996. 7. 3. 함양본당 주임 신부
1996. 7. 4.~2000. 1. 17. 대건본당 주임 신부
2000. 1. 18.~2003. 1. 13. 가음동본당 주임 신부
2003. 1. 14.~2005. 1. 14. 의령본당 주임 신부
2005. 1. 15.~2007. 1. 1. 산호동본당 주임 신부
2007. 1. 2.~2008. 12. 28. 토월본당 주임 신부(사파동본당)
2008. 12. 29.~2011. 1. 6. 신안동본당 주임 신부
2011. 1. 7.~2012. 1. 5. 휴양
2012. 1. 6.~2021. 7. 30. 원로사목자
2021. 7. 31. 선종



주교회의 상임위원회(7월 12일)에서는, 모든 교구가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에 함께하기로 한 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14개 교구에서 주교회의로 보내온 백신 나눔 기금(총 2,541,297,166원, 7월 5일 기준)을 교황님께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 결정에 따라, 주교회의 사무처는 7월 16일 교황청 은행 계좌로 백신 나눔 기금을 송금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는 주교회의 의장 주교님 명의의 서한(7월 19일 자, Prot. No. 148/2021)을 보내 드렸습니다.

이에 교황님께서 한국 교회의 백신 나눔 기금에 대한 감사 서한(번역문 포함)을 보내오셨기에, 이를 전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감사 서한

2021년 7월 21일 바티칸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의장이자 수원교구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께

친애하는 형제에게,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대표하여 주교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도록 저에게 보내 주신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애덕을 보여 주신 모습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는 참으로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너그러움과 형제애를 통하여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황자선소에서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국 교회의 사제들, 수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의 진심 어린 애정과 영적 친밀감을 전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요셉 성인,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전구를 청하며, 주교님과 주교님께서 돌보시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주님 은총의 보증인 교황 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애의 마음으로,

프란치스코



From the Vatican, 21 July 2021

Dear Brother,

I received the offering that you, on behalf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sent me to provide vaccines for poor and needy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gesture of christian charity, which really touched me.

Your generosity and fraternity will allow the people suffering the most from the pandemic Covid-19 to receive the necessary aid. The Office of Papal Charities will take care of this assistance service for the poor countries.

I embrace you all and I kindly ask you to thank the priests, religious and faithful of your local Churches, granting them my sincere affection and my spiritual closeness.

In invoking the intercession of the Holy Virgin, St. Joseph and St. Andrew Kim, I gladly impart to you and to all those entrusted to your pastoral care my Apostolic Blessing as a pledge of abundant heavenly graces.

Please, continue to pray for me!

Fraternally,



His Excellency
Most Rev. Matthias RI Jong-hoon
Bishop of Suwon
President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74, Myeonmok-ro, Gwangjin-gu
Seoul 04918
KOREA

실로암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선희 안젤라 시인/ 가톨릭 문인회

공간 한쪽에 작은 관상어 구피 네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틈틈이 들여다보고 물도 갈아주고 먹이도 주었다. 약간의 수초들 사이에 있다가 아침저녁 먹이 줄 시간이 되면 힘이 넘치는 모습으로 모여들곤 했다. 구피는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유독 한 마리는 잘 자라지 않았다. 먹이를 조금씩 나눠주면서 의도적으로 작은 녀석이 좀 더 먹을 수 있는 쪽으로 주었다. 하지만 다른 큰 구피들이 물려들면서 얼마 먹지도 못하고 먹이를 뺏기곤 했다. 사실 큰 녀석들은 잘 자라지 못하는 한 마리 때문에 더 많은 먹이를 먹곤 했다.

어항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등한 듯한 일을 해결해 보려고 매일 인간힘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돌보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해 이렇듯 마음이 쓰이는데 이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실까?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매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가로채 가버리고 나누지 않는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그나마 구피들은 먹을 수 있는 양만 먹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쟁여두고 쌓아두려 하는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세상은 분명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 내가 키우는 어떤 구피도 싫거나 밉지 않지만 네 마리 모두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내 마음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여 모두가 행복하기를 아버지 하느님께서 간절히 원하지 않을까?라는 상념에 빠져 본다.

엄청 더운 날이었다. 직장인의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간 밀렸던 일과 일주일 준비하는 일로 바쁜 날이다. 땀이 나고 더웠지만, 기후 위기의 지구를 생각해 선풍기만 켜놓고 밀반찬을 만들고 빨래 세탁을 하였다. 실로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일하니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토요일 오후가 거의 저물고 저녁 시간이 다 되었다. 해 놓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주말이 다 가버렸다. 베란다로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내게 실로암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저 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고향의 그리움 같은 이 마음이 나를 치유해 주니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실로암이 있었구나! 남강 강변 길, 푸르른 나무와 숲, 재잘대는 아이들의 목소리, 서로 주고받았던 따뜻한 말, 힘내라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실로암이 되어 주었다. 지치고 상처 입은 나의 영혼과 육신이 숨만 헐떡이며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새 치유되어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 모든 생명의 치유를 위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실로암을 많이도 준비해 주셨으니 자주 실로암으로 가서 치유를 받고 또 힘내서 살아야겠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 곁에 마련된 실로암을 기억하며 살아야겠다. 서로에게 실로암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 모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제25회 가톨릭 미술상 공모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제25회 가톨릭 미술상 후보작을 10월 31일(주일)까지 공모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 가톨릭 교회 미술의 발전과 토착화를 위해 지난 1995년 가톨릭 미술상을 제정, 현역 미술가들의 근래 작품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다.

[본상]은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디자인 부문에서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고 추천 양식을 갖추어 접수된 작품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추천위원은 가톨릭 미술상 운영위원, 교구 가톨릭 미술가회 회장과 지도신부, 주임 신부, 역대 가톨릭 미술상 본상 수상자, 교구 건축위원회(건축부문에 한함), 수도회 및 가톨릭 기관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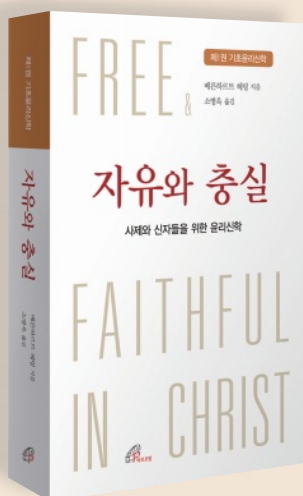
[추천작품상]은 부문과 관계없이 교구 가톨릭 미술가회 추천을 받고 추천 양식을 갖추어 제출한 작품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교구 미술가회는 본상과 별도로 회원 가입 여부, 연령 제한 없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특별상]은 부문과 관계없이 한국 천주교회 성미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작가와 작품을 선정, 시상한다.

후보작은 ▲깊은 신앙심에 바탕을 둔 예술성이 높은 작품 ▲정통적이며 창작성이 뛰어난 작품 ▲보편성 위에 한국적 토착화를 성공적으로 표현한 작품 ▲신재료와 기법의 개발로 가톨릭 미술의 영역을 넓힌 작품이어야 한다. 본상과 추천작품상 후보작은 ▲시상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제작된 작품으로, 교회 관련 시설인 건축물, 전례 공간이나 교회 기관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가능한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작품이어야 한다.

▶ 응모 접수, 자세한 사항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참고 및 문의(02·460·7647) 하면 된다.

신간소개 



자유와 충실 제1권 기초윤리신학 사제와 신자들을 위한 윤리신학

『자유와 충실』은 가톨릭 윤리신학 전반을 다룬 대작이다. 세 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 책은 제1권으로서 기초윤리신학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관한 신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중심을 둔 삶의 기초이론, 교회 내 윤리신학의 역사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점한다.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베른하르트 헤링
- 옮긴이: 소병욱



일 립



교구장 동정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미사

일시: 8월 21일(토) 10:3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8월 17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미사

일시: 8월 21일(토)
장소: 각 본당

47차 탈출기 연수(일정 변경 및 비대면으로 진행)

'코로나19'관련 대응 지침에 따라 '47차 탈출기 연수'를 비대면("ZOOM")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8월 21일(토) 10:00~18:30
8월 22일(주일) 10:00~16:00

강사: 최진우 아드리야노 신부

대상: 창세기 연수 이수 및 탈출기 성경그룹 공부를 수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청년

문의: 010·2961·9918(최수미 루피나),
010·6245·4967(임기호 보니파시오)

52차 선택주말

일시: 10월 16일(토)~17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2~30대 미혼 남녀 누구나
(46차<2016년 11월> 이전 참가자 재신청 가능)

참가비: 6만 원

준비물: 미사준비, 필기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개인컵

신청: 9월 23일(목)까지

문의: 장혜민 리파 010·4288·2698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8월 기도모임

일시: 8월 16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208차 ME주말 안내(일정 변경)

일시: 9월 10일(금) 19:00~12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9월 3일(금)까지, 전화 및 문자로 접수
(문자 발송시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기 타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모집

기간: 8월 23일(월)~2022년 3월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2022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일시: 9월 6일(월)~24일(금)까지

모집: 전국 전지역

문의: 충북 청주시 양업고등학교 043·260·5076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202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모집 안내

미래 100년 새로운 창학

모집인원: 3,045명(수시 2,796명)

·유스티노자유대학 신설(전면 온라인강의)

·복지서비스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탐정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8월 21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8. 27.(금)~29.(주일)/ 9. 9.(목)~12.(주일)
9. 24.(금)~26.(주일)/ 10. 1.(금)~3.(주일)
■한국성지 167 완주
10. 25.(월)~10. 28.(목) 대전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온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비누
힐데스킨

EM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일 름

•3년만에 졸업 및 전문자격증 취득
•다양한 장학혜택 및 저렴한 학비
문의: 053·850·2580(입학상담)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소식

무농약 양파 나눔

7월 27일 교구청 마당에서 무농약 양파 나눔이 있었다. 이 나눔은 가톨릭농민회원인 이진홍 씨가 올해 양파 농사가 풍년인 것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교구에 전해오며 이루어졌다. 교구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산하 22개 기관 및 시설에 골고루 배분되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진홍 씨 부부는 중·고교 교사였지만 뜻한 바 있어 합천에 귀촌하여 세 자녀를 키우며 자연과 생명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있다.



누군가를 바라보기-공지영의 「열쇠」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공지영은 『수도원 기행』이라는 여행기를 펴낼 정도로 독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집 『별들의 들판』은 베를린 생활을 바탕으로 쓴 연작집인데, 그 가운데 「열쇠」라는 작품이 있다.

사제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야가 인간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 작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대인 미진과 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신학 공부를 하러 온 신부 미카엘이다. 미진은 미카엘 신부를 사랑하고 있다. 그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가 소설의 중심 스토리이다.

화가 강문자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폭설로 오지 못하고 미진과 미카엘 신부만이 함께 기차를 타고 와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집주인 강문자는 남편의 거듭되는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망으로 취해 잠이 들고 폭설에 갇혀버린 별장에서 미진과 미카엘 신부 둘이서만 술을 마시게 된다.

이미 미카엘 신부에게 연모의 감정을 고백했던 미진은 그에게 왜 신부가 되었는지 묻는다. 남편의 사랑이 아닌 규율에 얽매인 사제로서의 삶을 택한 데 대한 후회의 말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미카엘 신부는 자신이 존경하는 박 신부님의 책에서 느꼈던 감동을 이야기한다.

“신학교를 갔는데 그만두고 싶었다나? 그런데 차일피일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고 내가 그만 두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우리 본당 신부님은 얼마나 실망하실까. 내 친구는? 내 동료는? 내 은사는? 그래서 용기 없는 자기 자신을 질타하며 시간이 흘러 신부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끌려왔다고 생각했던 거. 자기가 눈치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실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소명이라는걸... 나 그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했어.”

미카엘 신부에게 사제로서의 소명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며,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사제의 소명이라는 것이다.

작품의 제목 ‘열쇠’는 그 관계를 상징한다. 독일의 문 잠금장치는 일단 열쇠를 돌려 잠그면 안에서 절대 그냥 열리지 않는다. 다시 열쇠를 꽂아야 열린다. 그래서 만일 문을 잠근 다음 열쇠를 밖으로 내던진다면 누군가가 그 열쇠를 주워 밖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

나란히 붙어 있는 두 개의 방에 묵게 된 미진과 미카엘 신부가 각자의 방 열쇠를 바깥으로 던지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타인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마음인 것이다.

술에 취해 잠들기 전, 강 화백은 신부에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어린 시절 성당에서 초콜릿을 한 움큼 쥐었는데 문득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여자아이도 초콜릿을 집었을까 궁금하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빈손인 걸 보고 자신도 집었던 초콜릿을 모두 놓아버렸다고,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 그것이 사랑이고, 그를 사제의 길로 이끈 소명이며,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그럴 때 그 누군가도 나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